

우리나라와 西洋 服飾에 나타난 階層標識에 관한 研究

권 현 주 · 이 순 홍*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Class Representation in Korean and Western Costume

Hyun-Ju Kwon · Soon-Hong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origin, the change and the symbolic meanings of class representation, and offers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lass represent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and western costume on the basis of class representation methods and types shown from ancient times to 18C.

In both eastern and western costume, the differences in status are commonly represented in the width and length of costume, color, textile, ornamental design, wearing, decoration, etc.

The costume of noble class was wide and long, while that of common class was narrow and short so that it could be convenient for them to move around. Especially, from 16C to 18C in the west the costume of noble class was expanded to the extent that it was inconvenient for them to move around not only by skirt swelling by using hoop, but also by pad, ruff, lace, etc. This appears to show that they are not working class.

Wearing and decoration of noble class were much more colorful, complicated and varied, while those of common class were simple and plain. In the west, the wearing of chiton and toga in Greece and Rome was different depending on social status.

More specific look at the differences in class representation shown in the eastern and western costume reveals that the higher the rank, the more the women in both Gothic and Chosun period covered the body, thereby representing rank. In 18C, the women in both Rococo and Chosun period commonly showed excessive decoration and lavishness on their hair, and in this period the width of skirt was also commonly expanded to the longest extent, with a slight difference put aside.

Key Words : 계층표식(class representation), 복식(costume), 계급(rank), 신분(status),
복식제도(costume system)

I. 序 論

복식은 자연적·사회적 要件과 착용자의 다양한 位相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산물로써 계급과 신분을 표현한다. 전통적인 계급사회에 있어서 신분질서는, 종교상의 법규와 先祖에게서 전래된 복장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성의 중시, 신분 차이의 명확한 구별이 일반 풍조가 되었다¹⁾고 한다.

한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거기에는 服飾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법률과 규칙이 생겨나는데 대부분은 階級·職能의 標識類別을 위한 服制나 복식제한을 위한 禁止令 등이 발표된다. 前者는 왕권 정치·봉건국가·통제 사회집단 등에서 보는 帝王服飾·貴族服·官服·公服·制服 등으로 型式·着裝·着用範圍 등을 규정한다. 後者는 대부분 사치금지령·儉約令(sumptuary law)이고, 때로는 비상시의 衣料制限을 위한 통제도 있다.²⁾

본 연구는 禁制 뿐만 아니라 服飾制度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서양 복식에 나타난 계층표식에 대한 연구로 東洋복식에 나타난 계층표식의 방법과 서양복식의 계층표식의 방법이 의복의 형태·색상·직물·문양·장신구·착장양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東·西洋 계층표식의 방법과 의미를 비교연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西洋은 西洋服飾史에 등장되는 나라 즉, 古代 이집트를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그리스·로마 및 중세·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에 따른 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東洋은 韓國에 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東洋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연구에 바탕이 되고자한다.

II. 理論的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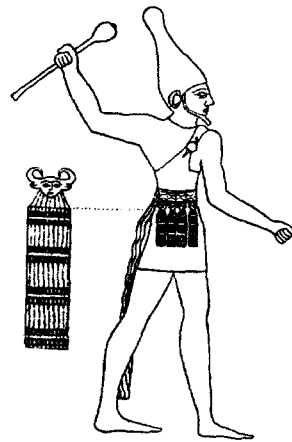
1. 階層標識의 起源과 變遷

1) 西 洋

의복은 개인의 성격 혹은 신분을 외견상으로 가

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시로 수렵과 채집으로 연명하던 시대의 의복은 오직 추위로부터의 보호, 몸의 보호, 성기의 가림 이외의 큰 용도는 없었으나, 농업이 발달한 시대에 이르러 의복은 새로운 용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의복 제도는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사회지위의 차이를 나타내거나 식별하는데 사용되었다. 사회구조가 더욱 확대되어 일정하게 安排되었을 때 의복은 정치적 작용을 갖게 되었다.³⁾

上·下 이집트를 통합하여 제 1왕조의 초대 왕에 오른 전설상의 인물인 나르메르(Narmer: B.C.2900년)의 모습(圖 1)에 보여준 허리띠는 왕의 에이프런의 시작으로서 중요하다. 허리띠에는 하타(Hathor) 여신을 상징하는 뿔이 난 암소머리가 올려 놓여진 4개의 길다란 구슬장식의 펜던트가 앞에 걸려있다. 허리선부터 발목까지 늘어진 사자의 꼬리는 용맹의 상징으로 처음에는 우두머리만 착용했던 것 같으며, 그것은 나르메르시대 이후 왕의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착용되었다⁴⁾고 하는데 그 당시 이미 복식은 계층을 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圖 1> 나르메르의 허리띠 장식(B.C 2900년경)
(『History of Costume』, p.8)

古代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은 높은 공지의 대상이었는데, 정식의 사치금지법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종교의 국가가 명확히 분리되고, 지위를 지정하는 수단이 중요하게 된 때인 로마 시대일 것이다. 토가

와 그 둘레의 장식선은 지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었다.⁵⁾

12世紀末부터 西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發布된 各層의 服飾을 규제하는 法令은 資本主義의 發興에 따라 自身들의 地位에 위협을 느낀 귀족들이 社會的身分의 區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표시킨 것이었는데, 이 法令은 色과 style과 장식 등에 제한을 두어 中産階級에는 금지시켰다. 獨逸에서는 담비毛皮가 貴婦人에게만 허용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291年 毛皮의 一部와 silk, 혹은 자주색 옷이나 화려한 장식을 거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禁止시켰다. 또한 公작, 백작, 남작 및 騎士들과 지방유지들에게 일년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gown의 수를 한정시켰다. 이러한 法令은 이들 계급의 부인들에게도 적용되었고, 연간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두어 적용하였다.⁶⁾

중세末의 身分制 社會에서는 특정 의복이 그 着用者의 지위의 상징이고, 복식은 일종의 신분 상징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식의 규제는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가, 衣裝으로 인한 계급표식이 不法化된 18세기末 불란서 혁명기에 이르러 그 존재의의를 잃거나 혹은 성격을 달리 하게 된다.⁷⁾

이후 산업이 발전하여 합성섬유와 인조섬유의 發明 등으로 의복의 대량생산이 증가되며 기성복이 출현하자 복식으로 인한 귀족과 시민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까지 왕실과 귀족중심의 패션에서 일반시민을 중심으로한 대중적인 패션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韓國

우리나라에서 복식이 계층표식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시대 禁制에 대한 기록으로 B.C.28年 高句麗 東明王代의 文彩紗羅衣의 禁止⁸⁾로 庶人은 文彩있는 옷과 비단 옷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服飾制度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三國이 각기 시기적으로 달랐는데, 고구려는 3世紀 「三國志」기록에 官等差에 따른 복식규정을 두었다.

백제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古爾王27(260)년에 公服制度를 갖추었는데 「二月에 왕은 壽命을 내려 6품 이상의 복장은 紫衣로 하며, 銀花로써 冠을 장식하게 하고, 11품 이상의 복장은 緋衣로 하고, 16품 이상의 복장은 靑衣로 하였다」라고 있어 官位十六階制가 공포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⁹⁾. 백제의 公服制度는 冠飾과 衣帶色으로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고 있다.

신라의 公服制度는 제 23대 法興王 7년(520)에 制定되고¹⁰⁾ 公복제도에서 中國제도를 채용한 것은 제 28대 眞德女王 2년(648)에 金春추가 唐에 請兵하러 가서 章服의 개혁을 청하며 中華의 제에 따르고자 하였을 때 唐 태종이 帶衣를 사여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국제와 관복의 華制로 이중구조를 이루게 되었다.¹¹⁾ 신라의 公복제도 역시 服色을 통한 身分표시로 紫·緋·靑·黃의 四色公服制度였다.

통일 후 신라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문화는 南 숙기에 접어들고 도덕은 차츰 해이해지고 복식제도도 문란해져 사치풍조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제42대 興德王 9年(834)에는 服飾禁制令을 내리는데 계급별로 법적인 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다.

高麗史 輿服志 서문에 의하면 고려 太祖는 신라의 旧制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제 4대 光宗(재위 : 949~975)에 이르러 百官의 公服을 정하니, 이로써 尊卑·상하의 등계가 밝혀졌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시대에는 景國대전(成宗 16년:1485)을 바탕으로 冠服制度가 確定되면서 續大典(英祖 22年:1746), 大典通編(正祖 10年:1786), 大典會通(高宗 2年:1865) 등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百官服 中 常服의 흉배 문양은 品階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것으로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게 된다.

2. 階層標識에 나타난 象徵的 意味

1) 紋樣의 象徵的 意味

문양은 人間 생활의 感情 表現으로 발생은 人間의 本능적인 美적 감각과 공간에 대한 공포심, 이에 대항하는 呪術的인 의미, 신분과 권력의 상징 및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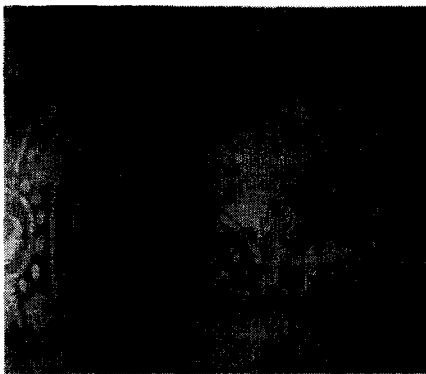
면 것을 식별하는 부호로서의 기능 등이 융합된 상징 도형에 기원을 둔다.

(1) 西洋

이집트에서는 장식의 모티브로 모든 神의 先祖인 태양이 세력의 영구불변을 의미하는 것에서 많이 이용되고, 그 중에서도 날개와 함께 모양화된 것은 인간의 삶을 영원히 지키는 것으로, 사원과 분묘의 입구 및 악세사리의 장식 등 도처에 이용되었다. 미이라를 넣는 관에 반드시 이 장식이 붙어 있던 것도 그 때문이다.¹²⁾ 로터스와 파피루스, 종려야자(palm)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로터스는 上이집트의 무궁한 생명을 상징한다. 파피루스는 下이집트의 상징으로 로터스와 같이 결합되어 쓰일 때는 로터스는 上이집트의 神인 태양을, 파피루스는 下이집트의 神인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으로 결합을 뜻하였다.¹³⁾

독수리(vulture)는 上이집트 神의 상징으로 上·下이집트가 통일된 이후에는 (B.C. 3100년) 신성한 코브라인 유리어스(uraeus: 聖蛇)와 함께 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페르시아의 문양을 보면, 식물문양에서는 아시리아의 聖樹송배가 표현된 것으로 오아시스는 神의 선물이라는 신앙에서 나온¹⁴⁾ 神聖樹가 새로운 형태로 보이며 동물문양은 古代 西아시아에서 예로부터 空想的인 動物¹⁵⁾이 표현되어온 것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받아들였다. 古代 오리엔트의 전통적 모티브를 종합한 페르시아 제국은 개의 頭像에 공작의 꼬리를 가진 센므르브(senmurv: 圖 2)와 사자의 몸



<圖 2> 센므르브(8~9세기)
(『A History of Textiles』, p.125)

통에 독수리 머리와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리핀(griffin)이 대표적인데, 이것들은 상상의 동물로 神의 위력을 표현하고 있었다.¹⁶⁾

비잔틴시대에 이르러는 직물에 종교적인 주제가 많이 나타나며, 문양 역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圓은 無窮의 상징, 十字型은 기독교 신앙, 羊은 그리스도를, 비둘기나 물고기는 성령을, 독수리는 힘을, 뱀은 타락을 뜻하였다.¹⁷⁾

식물 문양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징으로 西洋文化에서는 꽃말에 나타나는 상징에서 보면, 月桂樹는 勝利, 橄欖은 平和, 葡萄는 豐穰, 로타스는 무궁한 生命 등을 의미한다.

(2) 東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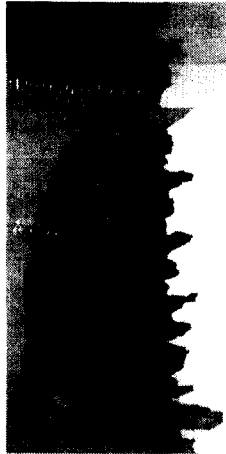
동양의 고대사회에 사용되어진 문양의 상징을 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은 크게 幾何紋·植物紋·動物紋·四神圖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민간신앙적인 성격조차 지니는 四神圖紋과 動物紋으로 瑞獸·瑞鳥紋·四靈獸紋을 들 수 있다.

四神圖紋의 四神은 古代의 四靈을 모체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四神이란 東洋의 陰陽五行思想에 근거하여 東·西·南·北 4方位를 표시하는 星宿名을 일러 말하며, 사방에 神을 상징적으로 대응시켜 靈獸로 사방을 수호한다는 東(靑龍)·西(白虎)·南(朱雀)·北(玄武)을 방위 대칭으로 표시한 것이다.¹⁸⁾

복식에 나타나는 紋樣의 상징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大禮服인 冕服의 衮服에 나타나는 12章紋을 들 수 있다. <後漢書> 輿服志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12章은 “日·月·星辰·山·龍·華蟲·藻·火·粉·米·黼·黻”인데, <隨書> 禮儀志 梁의 服制條에는 “日·月·星辰·山·龍·華蟲·火·宗彝·藻·粉米·黼·黻”로 되어 있다. 이는 隋·唐을 거쳐 후세의 12章의 정식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말에 高宗이 皇帝位에 오른 뒤에 日·月·星辰이 있는 12章服을 착용하였는데 이때의 日·月은 원형 가운데 三足鳥와 蟾蜍가 없는 원형만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百官의 常服에 부착된 흉배 紋樣에 있어서도 階級을 가려 文官에게는 仙鶴, 錦鷄, 孔雀, 雲雁, 白鷗, 白鷺, 鸕鷀, 鳩鵒, 眞雀 같은 鳥類를 사용하였고, 武官에게는 白澤, 獅子, 豹, 虎, 熊羆, 虺, 犀牛, 海馬, 獬豸, 麒麟 등의 동물을 사용하였다. 白澤은 일명 澤獸라 일컬어 王者의 有德을 뜻하는데, <圖 3>은 英祖가 즉위하기 前인 君으로 있던 시절의 모습으로 가슴에 白澤흉배를 하고 있다.



<圖 3> 常服 (延祿君 : 1714年)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p.41)

직물의 地紋으로 많이 사용된 문양은 雲寶紋, 雲龍紋, 瑞雲鳳凰紋, 牧丹紋, 雲鶴紋, 蝙蝠紋, 牧丹唐草紋, 蓮華紋, 菊紋, 古祥語句 등이다. 이러한 문양들은 王家의 복식이나 百官의 常服인 冠服과 여인들의 원삼 등에 사용되어 신분이나 길상적 의미를 암시하기도 했다.¹⁹⁾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신구 하나 하나에도 長壽나 福을 기원하는 등 그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 色の 象徴的 意味

색에 나타나는 상징은 문화적인 배경과 지역, 환경 및 풍토에 따라 각기 다른 상징성을 지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에 느낌을 주는 “정서적 반응”과 그 색을 국가나 사상, 또는 규칙의 표지 색으로 하려는 “사회적 규범(약속)”²⁰⁾으로 나누거나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분과 계급을 상징

하는 색”, “방위를 상징하는 색”, “감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 西洋

고대 이집트인들은 색채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상징적 의의를 부여했으며 그 상징적 의의가 모든 예술과 문화에까지 침투했다. 고대 그리스인도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색채를 우주의 질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²¹⁾

古代 地中海文化 중의 여러 지역에서는 深紅(Tyrian purple)이 王者의 色으로 간주되었으며, 古代 로마에서도 紫色衣(深紅色衣)가 높은 身分을 나타내며, 紫色(紫衣)은 尊貴한 신분이나 그 人物을 意味하게 되었다. 즉, 보라색은 신을 상징하는 푸른 색과 인간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합쳐진 것으로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다.²²⁾

염색기술이 발달하자 로마에서는 색이 직업과 계층의 표시로도 이용되었는데 靑色은 철학자, 黑色은 神학자, 綠色은 의사를 나타내며, 占者는 白色 한가지 색, 하층계급은 수수한 색 一色인 양모의 자연색으로 되었다.²³⁾

감정을 상징하는 색을 보면, 비잔틴시대 이래 색채에 대한 기독교적인 상징이 성립되었는데 白色은 純潔, 靑色은 神聖, 赤色은 神의 사랑, 深紅色은 尊貴, 黃色은 豊饒, 金色은 德, 綠色은 永遠한 靑春, 紫色은 謙讓 등을 상징하였다. 이는 비잔틴과 中世 西歐文化에 침투되었으며, 따라서 중세 종교화를 보면, 성모마리아가 靑色옷에 赤色, 만도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신의 神聖과 신의 사랑이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²⁴⁾

일반적으로 紫色은 세계 각국에서 고귀한 색으로 여기고 있으나, 브라질에서는 悲哀를 뜻하는 색으로 사용되며 또한, 젊음을 상징하며, 영원한 희망을 나타내는 靑色은 프랑스·영국·스웨덴에서는 왕위의 상징적인 색채로 중요시하였다. 黃色 역시 권위와 부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고귀한 의미로 사용되나, 시리아에서는 죽음을 대표하는 색으로서 반대의 의미로 상징되어진다.²⁵⁾ 고 하였듯이 복식에 있어 색채는 고대부터 착용자의 신분과 감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2) 東洋

색은 또한 방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동양의 陰陽五行思想 등에 근거한 五方色의 개념으로 靑色은 東(春), 赤色은 南(夏), 黃色은 中央(四季), 白色은 西(秋), 黑色은 北(冬)을 상징하며, 계절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기 10년 이전에 한반도에 陰陽五行學說이 들어와 있었다²⁶⁾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王服五綵에서 중국의 正色인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觀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에 있어서 陰陽家의 思想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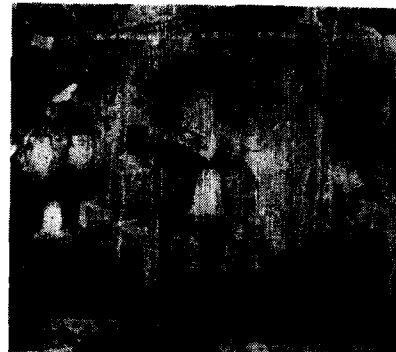
<圖 4>는 安岳三號墳(357年)의 주인 부부상의

國의 天子色인 黃色과 가깝다고 禁令을 내린 적이 있으며, 紫色은 원래 朝鮮에 있어서의 君王의 色인 동시에 原料가 倭에서 들어오는 丹木 蘇木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禁한 것이다. 灰色·玉色은 白色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吉兆가 못되고 亡國의 징험이 있다하여 禁했고, 綠色은 宮 안에서 즐겨 입음으로 아래에서도 따르니, 이에 上下가 無別하다하여 禁令을 내렸다.²⁸⁾

이와 같이 색이 갖는 신분과 계급, 방위, 감정 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문화·민족·시대·지역·환경·풍토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a. 主人圖



b. 婦人圖

<圖 4> 安岳三號墳 (357年) 主人부부像
(『裝飾古墳の世界』, p.128)

로 주인은 白羅冠을 쓰고 赤이나 紫 혹은 이 두색 사이의 색으로 보이는 상의를 착용하고 있다. 부인은 紫色에 흰 점무늬가 있는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紫, 緋, 두색은 이미 중국에서 고위층 복색으로 간주하여 고구려에서 그대로 습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식적 권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五方色에 의한 색채의 상징은 계급사회의 신분과 관련되어 각 사회신분의 지위를 암시하는 상징적 기능을 행사한다. 그 결과로 출현하는 황색의 금지와 적색의 금지령은 황제와 왕을 상징하는 색채로서의 상징을 갖기 때문에 금지된 예라 하겠다.²⁷⁾

조선왕조시대에 禁制에 나타난 服色을 참고로 보면, 黃色은 中國皇帝의 色이므로 禁했고, 紅色은 中

Ⅲ. 時代別 服飾에 나타난 階層標識

1. 西洋服飾에 나타난 階層標識

1) 이집트 服飾의 階層標識

이집트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의복인 로인클로스(loincloth, 腰衣)는 센티(schente)라고도 하는데, 왕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모두 착용하였다. 남자의 로인클로스는 초기 왕조에는 길이가 다양했으나 최고 무릎 위까지였으며, 고왕국의 말에 이르러 상류층의 요의는 눈에 띄게 길어졌다.²⁹⁾ 형태도 다양해져서 여러 개를 겹쳐서 동시에 착용하는 등, 옷 길이와 옷감의 분량·입는 방법·장식물에 있어서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품이 많이 생겨났다.

신왕국시대 이후 주로 왕족들이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목에 두르거나 걸쳐 입은 우아하고 독창적인 숄(shawl)형의 의상으로 하이크(haik)가 있는데 비해 무용수들이나 여자 노예들은 허리에 띠만 두르거나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 시대는 관모를 비롯한 장신구 및 부속품들이 착용자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圖 5>에 보이는 투탄카멘王의 골든·마스크에는 크라프트를 쓰고, 頭巾의 前面에는 上이집트(나일강 상류)王의 상징인 독수리와 下이집트(나일강 하류)王의 상징인 뱀을 붙였으며, 또한 권력을 표시하기 위함으로 인공 턱수염을 달았는데 수염은 신성을 뜻하는 것으로 제4왕조 무렵에는 단순하였으나 제 18왕조 이후에는 기교적이고 진기한 인상을 준다. 즉, 길이가 2인치 정도에서 훨씬 긴 것까지 나타나며, 땅기도 하고 앞을 컬(curl)한 것까지 있다.³⁰⁾



<圖 5> 투탄카멘의 골든·마스크
(『서양의 복식문화』, p.36)

이집트는 엄격한 계급사회로 옷길이나 옷감의 분량, 착용방법·장식품에 있어 계급적 차이가 있는데 특히, 왕과 귀족들은 장신구 및 부속품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메소포타미아 服飾의 階層標識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기본복식은 튜닉(tunic)

을 입고 그 위에 숄을 걸치는 것으로 바빌로니아의 왕이나 상류계층의 튜닉은 발목까지의 길이이며, 군인이나 하류층들의 튜닉은 무릎 정도의 길이이다.

앗시리아 역시 상류층은 옷길이가 길고 군인과 노동자는 무릎 길이였다. 왕과 귀족의 튜닉은 전체에 무늬가 있는 것이 있고 아랫 도련에 길이가 긴 숄이 달려있다. 또한 왕과 귀족들은 숄의 길이는 물론 숄의 숫자, 폭과 배치 등으로 신분을 나타냈는데 그 디자인도 다양하게 만들어 장식했다.³¹⁾

숄(fringe)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길이가 아주 긴 숄이 달린 숄은 수상(Prime Minister), 두 줄로 숄이 달린 숄은 제사장, 길이가 짧은 숄이 달린 숄은 왕의 수행원, 지위가 낮은 관리는 숄을 두르지 않았다. 상류계층의 남자들은 수염을 길렀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길이가 길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머리에는 띠(fillet)를 두르거나 삼중관을 썼는데, 특히 王이나 고관들은 보석이 박힌 삼중관이나 토르크를 썼다. 여자들은 베일을 썼는데 여자 노예와 매춘부는 베일을 쓰지 못했다.³²⁾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기본복식인 튜닉과 숄에 나타나는 숄(fringe)의 길이·숫자·폭과 배치 등으로 지위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3) 그리스 服飾의 階層標識

그리스의 기본적인 복식인 키톤(chiton)의 입는 방법은 성별, 연령, 사회계층에 따라 달랐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의 의복과 장신구는 화려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헬레니스트릭 시대에 부녀자는 키톤을 장레나 축제 때 한번에 3벌 이상 껴입지 못하게 하는 服飾禁制(sumptury law)가 있었고(B.C.638~B.C.559)³³⁾ 또한, 여행 중에 여자들은 3벌 이상의 의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³⁴⁾

히마티온(himation)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두르는 방법과 드레이퍼리의 기교가 다양한데, 이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자연적으로 착용방식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히마티온의 착용방법은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³⁵⁾

기혼부인과 철학자는 거의 전신을 감사는 형태로 착용하였고, 추울 때나 애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방형의 히마티온으로 머리를 덮어쓰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에서 양모를 사용한 의복은 흰색이 많았지만 일반인들은 어두운 색의 겉옷을 착용하였다. 법률에 의하면 일반 서민들은 극장이나 공식 장소에서 붉은 색상의 의복 착용을 금하였는데³⁶⁾ 紫色이 귀한 색으로 쓰였으며, 가장자리에는 검은색·보라색·암흑색·회색의 色絲를 넣어 짜거나 수를 놓아서 장식하였다. 농부는 녹색·회색·갈색을 입었다.³⁷⁾ 공식적인 장소에서 인정된 색상은 중성 색조에 의해 완화된 흰색 계통의 천연색이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된 색은 짙은 색들이었다.

4) 로마 服飾의 階層標識

로마의 대표적인 시민복으로 토가(toga)는 초기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착용하다가 제정시대부터는 공식복으로 지배계급에서만 입었으며, 제정말기에 官服이 되면서 색상이나 트리밍, 입는 방식 등이 계급에 따라 엄격히 달라졌다.³⁸⁾

제정말기에 토가를 입는 방법과 팔 위로 늘어뜨리는 천의 처리법은 착용자의 품위를 나타내었으며 입는 사람의 지위, 형태와 색상, 장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토가의 색 역시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자색과 황금색은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전문직에 따라 색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의복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의 가지 수도 제한하여 왕실에서는 7가지색, 족장은 3가지색, 관리는 2가지색, 농민은 1가지색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³⁹⁾

튜닉에 장식한 클래비(clavi)는 공화정 시대에 계급이나 지위의 상징이었다. 폭이 넓은 클래비는 7~10cm의 폭으로써 원로원 의원의 상징이었으며, 폭이 좁은 클래비는 약 0.9cm의 폭으로 귀족이나 기사계급의 상징이었다. 두 가지 어느 것이나 겉옷의 앞면에 양어깨와 소매에 이르도록 장식되었으나, 1세기경부터 엄밀한 계급구분은 없어지고 차차 일반 대중의 상징으로써 계승되었다.⁴⁰⁾

로마의 귀부인들은 염색을 즐겨하며 금발을 이상으로 여겼는데 야한 황색 및 청색은 창부의 색으로 여겼으며 기혼부인들이 복잡한 머리형태를 즐겼던

반면 하층여인들이나 미혼녀들은 단순한 머리형태를 애용했다.⁴¹⁾

염색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복식의 색은 직업의 표시로도 사용되었고 색상으로 사회계층을 구별할 수 있는 로마 특유의 계급의식을 반영하게 되었다.

5) 비잔틴 服飾의 階層標識

비잔틴의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은, 公式의 人 外套이며 5世紀 初期頃에 純粹한 皇帝服으로 昇格했다.⁴²⁾

팔루다멘툼에는, 타블리온(tablion)이라고 하는 四角形의 裝飾(圖 6)이 있으며 이는 當時 王族과 貴族의 衣服에서 볼 수 있는 高貴의 表示이다.



<圖 6> 유스티니아누스 황제(6세기)
(『西洋服飾發達史 - 古代・中世編』, p.143)

비잔틴 後期에는 팔루다멘툼의 着用이 一般人에게는 禁止되고 可祭나 王族, 貴族에게만 局限되어 公式衣服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팔루다멘툼에 이어 비잔틴의 또 하나 特徵的인 衣服으로는 로룸(lorum)이 있다.

로룸은 토가(toga)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王族들의 裝飾의인 띠로 변한 것으로서 聖職者 팔리움(pallium)에 해당하는 王室服裝, 팔리움이 大主教의 標示이듯이, 로룸이 皇帝와 皇后의 特權이었다.⁴³⁾

비잔틴時代에는 脚衣의 사용이 貴族이나 王族의 服裝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마時代에는 야만족의 風習이라고 하여 특히 支配階級에서 拒否된 것이었으나, 6世紀 以後로 게르만民族이나 東方民族의 影

響을 받아 支配階級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⁴⁾

비잔틴時代 달마티카는 一般 基督教徒에게 着用되다가, 6世紀에는 皇帝·皇后 등이 着用하는 高級服飾의 地位로까지 올라가 8~12世紀의 皇帝·皇后 등의 달마티카에는 兩面 어깨, 옷자락 등에 裝飾的인 紋樣이 配合되어 보석류 등의 악세사리로 裝飾化되는 등 비잔틴時代의 象徴으로 되었다.⁴⁵⁾ 그 身分에 따라 織物과 裝飾, 外套 등에 使用의 差異가 있었다.

6) 로마네스크 服飾의 階層標識

로마네스크(Romanesque : 11~12세기)시대의 복식은 달마티카나 튜닉이 일반서민 계층에 널리 입혀졌으며, 튜닉은 대부분 둥근 목둘레이나 스퀘어 네크인 경우도 있는데 상류층의 튜닉은 목둘레·소맷부리·아랫도리에 장식襞이 붙어있다.⁴⁶⁾ 색순족의 기록을 보면 네크라인, 소매단, 아랫단 근처에 수를 놓은 밴드가 있고 스커트의 왼쪽에 별도로 문양이 있는 튜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류계층을 의미한다.⁴⁷⁾ 11세기에는 남녀 모두 블리오(bliaud)를 입었는데 여왕의 경우 블리오를 입고 그 위에 금이나 보석 장식이 있는 거들을 매었다. 반면 일반 서민복은 중세 초기의 튜닉에 남자는 호즈나 브레를 입는 활동적인 형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남자들은 실내나 실외에서 거의 맨머리이었으나 농부는 예외였는데, 농부는 길이가 거의 발목까지 오고 다리가 드러나는 갈색바지위에 무릎길이의 푸른색 튜닉을 입고, 챙이 있는 모자를 썼다.

머리에 귀부인들은 주로 관을 이용하며, 후드의 새로운 형태인 코이프(coif)는 상류층에서 애용되기 시작했는데, 코이프는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착용되었다.

7) 고딕 服飾의 階層標識

십자군 원정에서 비롯된 고딕복식의 특징은 각 가문의 상징인 紋章의 사용이었다. 문장 장식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을 의복에 수놓은 것으로 귀족들은 하층계급으로부터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는 가문과 부의 과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⁴⁸⁾

고딕시대는 12세기에 상류계층에서 입었던 블리

오 대신에 13세기에 꼬뜨(cotte)가 널리 입혀졌으며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꼬뜨의 변형으로 꼬다르디(cotehardie)가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어졌다. 꼬뜨는 일반서민에게도 널리 입혀진 의복이었으나, 상류계층의 부인들은 꼬다르디 위에 쉬르코 뚜베르(surcot-ouvert)를 착용하여 장식적인 효과와 과시를 나타내었다(圖 7).



<圖 7> 쉬르코 뚜베르를 착용한 귀족부인(1388年) ('20,000 years of Fashion', p.206)

후드의 끈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리리피프(liripipe)라고 하였는데 고딕 건축의 영향을 받은 리리피프는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착용하였고 길이는 계급에 따라 제한되었다.⁴⁹⁾ 그 길이는 보통 5~6피트였고, 그 끝을 손으로 잡거나 등뒤에 늘어뜨렸다.⁵⁰⁾ 에낭(hennin)의 뾰족한 부분도 고딕 건축의 영향을 받아 숭배를 나타내었으며 그 높이에 따라 사회적인 계급을 구분하였고 높이 역시 계급에 따라 달리 규정되었다.

복식금지법은 두식에도 적용되었는데, 여왕이하 남작부인 계급까지의 모든 부인들은 뽀플(wimple)과 비슷한 바르베(barbe)를 턱 위에 착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작부인과 남작 아래 계급의 부인들은 바르베를 턱 아래에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치금지법에 왕비의 턱을 덮을 권리나 더 낮은 계급 여성들의 턱을 덮는 정도나 높이가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뽀플은 중요했다.⁵¹⁾ 또한 기독교의 영향은 신체를 가리는 것이 미덕이었고, 여왕과 높은 계급

의 부인들만이 턱을 덮을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더 낮은 계급의 부인들은 신체를 가리지 못했고, 신체의 노출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할 수 있었다.⁵²⁾

신발으로는 발목길이의 슈즈를 많이 신었는데, 상류층으로 갈수록 앞 부리가 뾰족하고 길었다.

8) 近世 服飾의 階層標識

르네상스 복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슬래쉬(slash)와 패드(pad), 그리고 러프칼라(ruff collar)로 초기의 러프는 작은 형태의 것이었으나 1560년대에는 러프의 전성시대로 거창한 주름장식이 두세겹으로 되어 있는 화려한 모습이었다. 헨리 3세가 착용한 러프는 20~35cm의 폭과 7m길이의 레이스로 만들었으며, 일반 평민은 작은 것을, 귀족은 주름이 깊고 큰 러프를 사용했는데 의식 때에는 더 거창한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⁵³⁾

남자들의 바지에 많이 이용된 패드는, 일부 귀족층에서는 패드를 많이 넣어 부풀렸으며 일반인들은 적당히 부풀린 것을 착용하였다.

16세기가 되면서 여자들은 신체에 인위적인 강조를 하여 새로운 의상미와 모드를 나타내었는데, 허리를 조이고 hips를 크게 부풀렸다. 르네상스 중기에 실루엣은 종처럼 확대되었고 스커트 앞 중심이 A모양으로 트여서, 속에 받쳐입는 패티코우트가 보이게 입었다(圖 8). 그러나 앞을 벌리는 디자인의 사용은 궁정에서만 사용되었고, 일반인에 대하여서는 제약이 있어 지위적 구별이 이루어졌다. 농부(農婦)나 직업여성에게는 이것의 착용이 금지되었다⁵⁴⁾.



<圖 8> 초기 르네상스시대 귀족 복식(16세기)
(『서양복식 문화사』, p.171)

언더니커즈(underknickers)는 부피가 풍성한 형태의 속바지로,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금실을 넣어 짠 화려한 실크로 만든 것을 입었고, 일반인들은 린넨이나 얇은 울로 만든 것을 입었다.⁵⁵⁾

바로크 남자복식 중에서 쥐스또코르(Justaucorps)는 중세때 병사들이 입었던 실용적인 코트에 기원을 둔 것으로 17세기 후반에 상류계급으로 보급되자 옷감도 화려해지고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였고 자수나 레이스, 단추 등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착용되었다.

1792년경부터는 긴 바지가 서민들에게도 보급되어, 다음 세기까지 착용되었는데, 시민들이 켈로뜨를 착용하지 않고 이 긴 바지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켈로뜨(sans culotte)라고 하여 귀족들과 구별되었다⁵⁶⁾.

이 시대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감과 장신구들이 넘쳐나는 왕실과 귀족중심으로 패션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近代 服飾의 階層標識

18세기말에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복식은 일부 권력층의 기호나 취미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민대중과 관계 있는 복식으로 발전하였다.

신분제 철폐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던 프랑스혁명은 신분에 따른 복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으며 1789년 혁명 발발 직후에 복식규제령은 폐기되었다.⁵⁷⁾ 1789년 복식규제법의 폐기로 복식의 민주화는 법으로 보증되었으며 종래의 귀족적 복장은 궁중에서만 남아있고 일반 사회에서는 시민적이고 실용적인 복장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⁵⁸⁾

종래에는 불길한 색으로 싫어했던 검정색이 의례와 공적인 색으로 되어 새로운 역할을 했는데, 검정색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은 없었다.⁵⁹⁾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완성기로서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산업의 기계화와 자본주의가 성숙한 시대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과 부유하지도 않고 빈곤하지도 않은 小市民層으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새 사회계급의 출현과 자유주의·민주주의의 발달은 지금까지의 王室과 貴族中心

의 패션에서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패션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대중을 위한 패션으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것은 기성복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기성복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의복의 표준화를 촉진시켜 중세이후로 확대·과장되어온 의복의 복잡한 디테일은 없어지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남자 옷의 기본이 定立 되었다.⁶¹⁾

이러한 19세기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된 시기로서 신분과 계급을 나타낼 목적으로 복식을 규제하는 禁制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본가·일반시민과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하며 복식은 자본가를 비롯한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화려함과 사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2. 韓國 服飾에 나타난 階層標識

1) 三國時代 服飾의 階層標識

三國은 서로 다른 官等組織을 갖추었고 官等에 따른 公服制度를 마련했다.

고구려 복식에 나타난 계층표식으로「新唐書」東夷傳에 의하면 “왕복은 五采服이며 王冠은 금테를 두른 白羅冠이었고 여기에 金釧를 장식한 革帶를 띠었으며, 大臣級은 靑羅 烏羽冠, 一般官人은 絳羅 烏羽冠에 모두 金·銀을 장식하였고, 의복은 筒袖衫·大口袴에 白革帶를 띠었으며, 烏革履를 신었다. 그리고 庶人은 褐衣를 입고 屨를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幘을 하였다...”고 하였다.⁶¹⁾

복식에 있어서 貴人階級の 袍는 大袖狀이고 길며, 낮은 계층의 袍는 窄袖狀이며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幘은 男女老少·貴賤 어느 층에서나 사용되었는데 귀인계급의 것은 기교를 부렸고 천인계급의 것은 단순하다⁶²⁾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볼 수 있는 襦의 기본형태에서 보면 깃과 도련, 수구에 幘을 대며, 이 幘은 장식적인 의미가 크며 색조와 문양의 변화가 많은데, 貴女에게만 있는 副幘과 有紋幘이 계급적인 차이를 느끼게 한다.⁶³⁾(圖 9)

百濟 公服制度에서 보면 王은 金花로 장식한 烏羅冠을 쓰고, 大袖紫袍에 靑錦袴를 착용하고 帶로



a, 雙楹塚(貴女) b, 雙楹塚(貴女) c, 角抵塚(主人)
 <圖 9>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貴女의 幘장식
 (『韓國服飾史論』, p.100)

는 素皮帶를 띠었고 烏革履를 신었다. 百濟의 官位 16品중 1品부터 6品까지는 冠에 銀花를 장식했다. 7品은 紫帶를 띠었고 8品은 赤帶를 띠었다. 10品은 靑帶, 11品 12品은 모두 黃帶, 13品, 14品, 15品, 16品은 白帶를 띠었다. 이렇듯이 百濟의 王과 신하는 冠장식의 소재가 金·銀 혹은 장식이 없는 것, 冠服色, 帶의 色으로 身分의 高下를 구별하였는데 服色에 있어서는 王이하 6品까지는 紫色을 7品부터 11品까지는 緋色, 12品부터 16品까지는 靑色의 冠服을 착용하였다.⁶⁴⁾

新羅 法興王代에 제정된 공복제도는 服色을 통한 位階를 표현한 방법으로 신라의 四色 公服制度가 紫·阜·赤·靑·黃·白인 점과 비교할 때 검은색과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四色은 序列이 같다. 이것은 신라의 色體系가 고구려의 白·靑·緋(絳)色의 서열체계보다는 백제의 色體系와 더 공통점이 많은 듯하다.⁶⁵⁾

신라의 복식은「隨書」와「北史」東夷傳 신라조에 “의복은 대개 고구려·백제와 같은데 服色은 素를 숭상한다”라고 한 것을 보아 襦·袴·袍에 冠帽를 쓰고 帶를 띠고, 靴나 履를 착용하는 그 기본적인 양식은 삼국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옷의 재료·길이·폭 등에 차이가 있었는데, <圖 10>에 보이는 신라사절은 烏羽冠에 통이 넓은 廣袖와 寬袴를 착용한 모습이다.

2) 高麗時代 服飾의 階層標識

고려의 公服制度 역시 服色을 통한 신분표시로 백관의 公服을 4色(紫·丹·緋·綠)으로 구분하는



<圖 10> 신라 사절
(『裝飾古墳の世界』, p.134)

四色公服制度이다.

高麗 顯宗 18年(1028)에 僧이 白衫·襪頭袴·綾羅勒·帛 선두른 襪衫·皮鞋·彩帽·笠子·冠纓의 服飾을 禁했고⁶⁶⁾ 仁宗 9年(1131)에는 内外의 錦繡工作을 禁止시키고 10年을 한하여 庶人이 羅衣와 絹袴를 입고 都中에서 騎馬하는 것과 奴隸가 革帶하는 것을 禁止시켰다. 그런데 毅宗 22年(1168)에 「王이 敎하기를 庶民의 사치하는 풍속이 유행하고 의복은 반드시 錦繡를 쓰고 器皿은 반드시 金·玉을 써서 심히 과인이 점검하는 뜻에 어긋나니 이제부터 内外의 所司는 통렬히 금단하도록 하라」⁶⁷⁾ 하여 仁宗의 禁止令이 庶民間에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초기에 法的 제제가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恭讓王 3(1392)年 「中郎將 房士良이 상소하기를 畝經에 이르기를 異土의 物件을 貴하게 여기고 쓰는 物件을 賤하게 여기지 않으면 百姓이 이에 豊足하다고 하였으니 我朝에서는 다만 土產物인 細紵와 麻布만을 써서 능히 오랜 年數를 지나도록 上下가 饒足하였는데, 이제 貴賤할 것 없이 異土의 物品을 다투어 貿易하여 길에는 帝王의 衣服을 입은 奴가 많고 거리에는 后妃의 粧飾을 한 婢가 널렸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士庶·工商·賤隸는 일체 紗羅綾緞의 衣服과 金銀珠玉의 장식을 禁하여 사치하는 풍속을 단속하고 귀천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를 可納하였다⁶⁸⁾ 고 했는데 내용 중에 당시 高麗에서는 帝王의 衣服을 입은 奴가 많고 后妃의 장식을 한 婢가 널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禁制는 존재했으나 禁制에 의한 의복착용의 규제에 따르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朝鮮時代 服飾의 階層標識

조선왕조시대에는 服制에 따른 品階의 엄격한 구별 외에도 많은 禁制가 나타나는데 禁制에는 階級的 規制의 측면, 奢侈禁制의 측면, 中國에 대한 事大의인 측면, 陰陽五行思想의 측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成宗 3年(1472) 正月에는 同 2年 5月의 傳旨를 받들어 奢侈禁制를 규제하는 廣範한 禁制節日을 만들어 上啓하였는데, “進上하는 衣襟는 11升布를 쓰고 庶의 의복은 마땅히 差等이 있어야 하니 이제부터는 上族의 衣服은 10升布를 넘지 말게 하되, 帖裏는 13幅을 넘지 말고…, 庶人의 衣服은 8.9升布를 넘지 말되, 帖裏는 12幅을 넘지 못하게 하고 裏裳은 10幅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⁶⁹⁾

織物에 대한 禁制로 太祖 6年(1398) 3月에 道評議使司가 올린 上啓 中에는 金銀에 對한 禁制와 紗羅綾綺와 各色 眞彩는 外國産이기 때문에 이어대기 어렵다는 理由로 宮家用 및 各官의 品帶를 除外하고는 兩府 이하 庶民에 이르기까지 일체 금할 것을 上啓하였고, 王命에 따라 道評議使司와 禮曹에서는 兩府의 官員 以外는 紗羅綾綺의 衣服을 입을 수 없게 하였으며 有職者도 銀, 絹斜皮는 사용할 수 없다는 上啓를 올렸다.⁷⁰⁾

그러나 織物禁制 즉, 이 紗羅綾緞의 禁制가 본격화 된 것은 世宗 11年(1429) 2月 때로, “大小婦女의 徒婢의 衣服 中 머선, 치마, 笠帽에는 단지 苧布로 된 것만을 이용하고 羅·絹는 禁한다. 또한 행주치마의 長短은 그 主人이 되는 婦人과 같게 하지 못한다. 만약 主人의 그것이 一尺이면 徒婢의 그것은 半尺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者는 禁한다.” “신분에 따라 衣服의 升數도 다르다. 苧布, 麻布, 綿, 木綿, 交綺는 一品부터 兩班子弟에 이르기까지는 十二升 以下를 工商人, 隸婢는 八升 以下를 사용하고 貂裘는 兩班子弟 以外에는 工商人隸婢는 입지 못한다”⁷¹⁾ 고하여 신분에 따라 직물의 사용 升數를 規制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시대에는 세밀하고 엄격한 官服

制度和 함께 직물·문양·색상 등에 上下 階層標識 이 뚜렷이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東·西洋의 階層標識 비교

복식문화를 비롯하여 한 民族의 民族文化는 그 民族의 歷史的 所産으로 그 歷史的 背景과 함께 時代感覺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각기 다른 나라들의 文化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다.

출생에 의해서 신분이 획득되는 엄격한 신분계급 사회에서는 계층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르며,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직물·색상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계층의 구분이 의복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의복의 신분상징성이 강해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東洋과 西洋 복식에 나타난 階層標識의 차이점을 직물에 사용된 '紋樣과 色' 이라는 한 측면과 頭飾·의복의 구성·착용방법·장식 등을 포함하는 '복식의 특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좀더 구체적인 比較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紋樣과 色

1) 紋樣

문양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세력의 영구불변을 의미하고 로터스는 上이집트의 무궁한 생명을 상징한다. 동물문양에는 甲蟲型 보석으로 딱정벌레(carabus)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태양을 본뜬 球形을 떠받들고, 날개를 붙여서 神의 수호를 나타내며 창조, 부활, 우주의 진리 등을 상징하였다.

시리아에서는 동물문양으로 사자, 말, 일각수(unicorn), 날개돋친 牝牛 등이 표현되었는데 이들은 神의 使者이며 마귀를 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高句麗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문양 중에는 四神圖紋과 動物紋을 들 수 있는데, 이는 瑞獸·瑞鳥紋·四靈獸紋이다. 四靈이란 龍·龜·麟·鳳凰을 일컫는 것으로 聖인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길조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靈獸이며 이 중에서도 龍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중국은 물론 신라·고려·조선을 통해 왕권의 상징으로 애용되었다. 鳳凰은 용에 버금가는 영물로 역시 왕권을 상징하며 왕실에서 사용하는 紋樣으로 일반은 쓸 수 없었다.

한국에서 직물과 노리개나 장신구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양에도 하나하나 그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해·달·山·물·두루미·거북·솔·대·사슴·靈芝草 등 十長生 문양은 長壽를, 牡丹은 富貴를, 松竹은 忍耐와 節概를, 菊花는 長壽, 杏花는 及第, 桂花는 吉祥, 열매는 子孫繁盛, 蔓草는 長壽 혹은 吉祥 등을 상징한다.

서양복식에 나타나는 직물 紋樣의 특징으로 사산조 페르시아 문양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動物爭鬪紋과 질주하는 말위에서 활을 쏘는 狩獵紋, 圓이나 수레바퀴에 싸인 종교적 성격을 띤 사람이나 동물의 對峙⁷²⁾ 및 꽃이나 식물등이 사용되었다.

문양이 寫實의인 것에서 7세기 이후에는 幾何學的인 것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는 A.D. 641年 이슬람교의 아랍군에게 패하여 이슬람시대가 되자 이슬람교는 문양에 인물을 금지했으므로 幾何學 紋樣, 唐草紋樣이 발달하게 되었다.⁷³⁾

그러나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 인물을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복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 있을 정도이다(圖 11)



<圖 11> 샤를르마뉴 王의 달마티카(800年)
(『History of Costume』, p.120)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고구려 舞踏塚벽화(圖 12)에 狩獵圖가 있기는 하나 직물의 문양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물문양 등이 비록 상상의 동물이긴 하나 사실적인 묘사로 흉배에 나타나는 정도이며 대개는 식물紋과 十長生 문양 및 古祥語句등의 문양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圖 12> 鳥尾冠(무용총 벽화)
(『한국의 복식』, p.47)

이러한 문양의 사용에 있어서 서양은 상류 계층에서 화려한 문양을 즐겨 사용하는 정도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신분에 따른 문양 사용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2) 色

색은 오래 전부터 서로 다른 사회계층의 구성원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은 갈색, 회색 그리고 검정색과 같은 색을 사용하도록 제한되었고, 값비싼 염직물을 살 수 있었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비록 선택에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더 밝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복식금제령의 예를 보면 로마시대에는 의복의 색채와 직물로 신분계층을 나타냈는데 농부는 한 가지 색채만을, 관리는 두 가지 색채, 지휘관은 세 가지 색채, 왕족은 일곱가지 색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라색은 신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인간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합쳐진 것으로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황제와 황후만이 황색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며,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외의 다른 색이 사용되었다. 황제의 여러 아내들의 등급은 그들이 입은 옷색상으로 나뉘었는데, 황후는 황금색, 가장 낮은 등급의 아내들은 검정색 혹은 흰색을 입었다.⁷¹⁾ 복식을 통한 신분의 표시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구체적인 수단인 색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색에 나타나는 東·西洋의 공통된 특성으로 紫色은 동·서양 모두에서 高貴한 色으로 사용되었으며, 낮은계층은 사용이 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國古代를 예로 들어 보면 紫色은 『禮記』玉條에 “衣正色, 裳間色” 이라고 있듯이 正色인 五色보다 하나 내려간 위치로 취급되었는데, 春秋戰國時代에는 紫가 間色이라는 위치인 데에도 불구하고 君主가 애용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臣下부터 庶民에게 까지 미쳤고 漢 시대가 되면 紫色은 복장 제도에서 綬의 색으로 등장한다. 隋代에는 紫色은 狩獵, 軍旅 등에 관한 때는 袴褶만이 아니라 다른 의복에도 5品 이상의 색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唐에서는 이전에 戒嚴이나 軍旅 등에 관한 때만 사용되었던 紫는 먼저 唐初의 制로 親王 이하 3品 이상의 袍衫의 服色이 되었다. 더욱이 太宗時에는 袍衫뿐만 아니라 3品 이상의 位階色으로 정해졌다.⁷⁵⁾

이처럼 중국에서는 春秋戰國時代에서 隋·唐시대에 이르기까지 紫色이 완전히 高官의 색으로 정해진 것은 唐時代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紫色이 이미 高貴한 색으로서 三國時代 服色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間色으로 간주되었던 紫가 차츰 그 위치를 높인 다음에 받아들여져서 服色을 정할때는 이미 高貴한 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2. 服飾의 特性

복식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성으로 동·서양 복식 모두 의복의 폭과 길이에 있어서 귀족계층의 것은 넓고 길었고, 서민층은 활동에 편하도록 폭도 좁고 길이가 짧았다.

의복의 종류 역시 귀족층은 다양하며 착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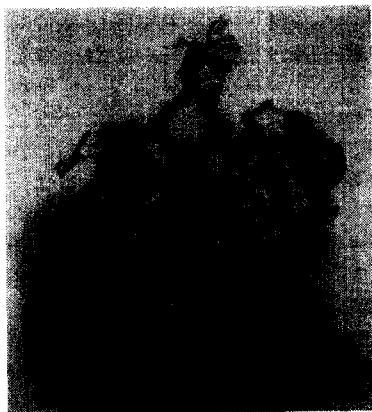
역시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있게 착용하며 화려한 장신구 등을 가미하여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반면, 서민층은 간단하고 소박하였는데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의 키톤과 토가는 입는 방식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세시대 서양복식은 기독교적인 정숙함의 의미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形으로 신체를 가리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여왕과 높은 계급의 부인들만이 턱을 덮을 권리를 가지며, 낮은 계급의 부인은 신체를 가리지 못하는 등 신체의 노출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동양과도 공통된 특성이며 특히 유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조선왕조시대의 여성은, 외출시 상류계층은 너울·쓰개치마·장옷 등으로 얼굴과 자태를 가렸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近世시대의 서양은 후프를 사용하여 스커트를 부풀리는 것은 물론 패드·러프·레이스 등 귀족들의 의상은 활동에 불편할 정도로 확대되어 일하는 계층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8세기 로코코시대 여성복과 18세기 조선시대 여성복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로코코시대에는 스커트 버팀대인 빠니에(panier)에 의해 스커트가 한껏 부풀려지고 머리는 점점 크고 높아져 거대한 구조물 처럼 되어졌으며 거대한 머리형을 만들기 위해 말털의 쿿션, 철사로 만든 머리틀, 포마드, 밀가루풀 등을 사용하였다.⁷⁶⁾(圖 13)



<圖 13> 로브를 입은 여성(1777년)
(『서양의 복식문화』, p.224)

같은 시대인 18세기 조선시대에는 단순화된 저고리와 장대화된 치마의 조화로 ‘上薄下厚’의 형태미를 연출하는데 넓은 허리말기를 중심으로 신체에 더욱 밀착되어 단순해진 저고리와 풍성하고 장대한 치마를 착용했는데, 거대한 트레머리와 밀착된 저고리, 둥글게 부풀어오른 치마의 대비로 굴곡이 심한 윤곽선을 형성한다.⁷⁷⁾

<圖 14>는 18세기 조선시대 여성복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圖 14>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윤곽선(18세기)
(『朝鮮服飾美術』, p.43)

당시 여인들은 머리치장에 많은 경비와 시간, 정성을 들였는데, 사서에 지나치게 가채한 큰 머리를 금지한 구절이 실증하고 있으며 성종과 연산군 시대에도 문제가 되었으며 영조대에 가채금지를 왕께서 대신들과 논의하여 왕이 가채를 禁하고 다시 33년(1757)에 親製綸音을 내려 가채를 禁하였다. 39년에는 가채만을 금하였으며 정조 12(1788)년에 備邊司가 加髻 申禁節日을 올렸다 한다.

이때의 부녀자는 큰 가채 머리를 자랑으로 여겨 다투어 큰 머리를 마련하기에 수백 금을 소비하는 등 지나친 머리에 대한 사치 풍조를 막기위해 관가에서 또는 궁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시대였다.⁷⁸⁾

이처럼 18세기는 서양과 한국에 있어 머리에 대한 사치가 가장 심하였던 시대이며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스커트의 폭 역시 가장 확대되었던 시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V. 結 論

동양과 서양 모두 服飾에 신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으로는 의복의 폭과 길이, 服色, 織物, 紋樣, 입는 법, 裝飾 등이며 東洋과 西洋 복식에 나타난 階層標識의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의 사용에 있어서 東·西洋 모두 상류 계층은 비싸고 귀한 silk나 고급 모직물을 선호하였으며, 하류계층은 싸고 거친 직물을 사용하였다.

둘째, 서양복식에 나타나는 직물 紋樣의 특징으로 사산조 페르시아 문양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動物爭鬪紋과 질주하는 말위에서 활을 쏘는 狩獵紋, 圓이나 수레바퀴에 싸인 종교적 성격을 띤 사람이나 동물의 對峙 및 꽃이나 식물등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고구려 舞踏塚벽화에 狩獵圖가 있기는 하나 직물의 문양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물문양 등이 비록 상상의 동물이긴 하나 사실적인 묘사로 흥배에 나타나는 정도이며 대개는 식물紋과 十長生 문양 및 古祥語句등의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東·西洋 복식에 나타나는 색의 특성으로 서양은 로마에서 紫色에 대한 사용이 규제되며, 사용할 수 있는 색의 가지 수가 계급에 따라 제한된 면이 있는 정도이나, 중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는 각 신분에 따라 服色을 엄격히 달리하였다.

넷째, 복식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성으로 동·서양 복식 모두 의복의 폭과 길이에 있어서 귀족계층의 것은 넓고 길었고, 서민층은 활동에 편하도록 폭도 좁고 길이가 짧았다.

의복의 종류 역시 귀족층은 다양하며 착용방법에 있어서도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있게 착용하며 화려한 장신구 등을 가미하여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반면, 서민층은 간단하고 소박하였는데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의 키톤과 토가는 입는 방식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종교적인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중세시대 서양복식은 기독교적인 정숙함의 의미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形으로 신체를 가리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여왕과 높은 계급의 부인들만이 턱을 덮

을 권리를 가지며, 낮은 계급의 부인은 신체를 가리지 못하는 등 신체의 노출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였다. 이는 동양과도 공통된 특성으로 특히 유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조선왕조시대의 여성은, 외출시 상류계층은 너울·쓰개치마·장옷 등으로 얼굴과 자태를 가렸다.

여섯째, 18세기는 서양의 로코코시대 여성과 한국의 조선시대 여성에 있어 머리에 대한 사치가 가장 심하였던 시대이며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스커트의 폭 역시 가장 확대되었던 시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및 미주

- 「高麗史」
- 「三國史記」
- 「朝鮮王朝實錄」
- 「增補文獻備考」
- 金鍾權(譯), 「完譯三國史記」, 서울: 廣智出版社, 1976.
-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譯註高麗史」, 부산: 東亞大學校出版社, 1971.
- 「세종장헌대왕실록 6」,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1.
- 「성종실록 3」, 서울: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 「이조실록 1. 105」, 서울: 여강출판사, 1991.
-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1994.
- 金英淑(編),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上古·高麗編」, 서울: 민족문화사, 1985.
-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 박일록, 「복장문화사」, 서울: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9.
- 백영자·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1998.
- 申尙玉, 「西洋服飾史」, 서울: 修學社, 1988.
-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敎文社, 1995.
-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敎文社, 1998.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5.
-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0.
-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世運文化社, 1979.
-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敎文社, 1989.
- 허진웅, 「중국 고대사회」,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강운숙, 「복식의 象徴的 意味에 관한 研究 - 陰陽五行思想을 基礎로 -」,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4.
- 權賢珠, 「東方文化에 影響을 받은 비잔틴 服飾文化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김경희, 「서양복 남자 바지의 변천과정 고찰 -기원에서 18C까지-」,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 김기업, "고딕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 김명애,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 -복식사 문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인숙, "서양복식에 나타난 금제고찰", 「대한 가정학 회지」, 19권, 3호(1981), pp.1~9.
- 박경자, "혜원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韓國의 服飾」, 서울: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pp.341~354.
- 박보영, "韓國 服飾文化史에 나타난 禁制 考察", 석사학위논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2.
- 양경애,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研究",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순홍, "李朝時代의 服飾禁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2.
- 林瑞雲, "古代東洋服色制度의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3.
- 정현숙, "십자군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 國立歷史民俗博物館(編), 「裝飾古墳の世界 -國立歷史民俗博物館開館10周年記念企劃展示」, 東京: 朝日新聞社, 1993.
- 丹野郁, 「西洋服飾 發達史, 古代・中世編」, 東京: 光生館, 1967.
-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 近世編 -」, 東京: 光生館, 昭和 42年.
- 服裝文化協會(編), 「服裝大百科事典 - 上 -」, 東京: 文化出版局, 1977.
- 小川安朗, 「民族服飾の生態」,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昭和 59年.
- 小川安朗, 「服飾變遷の原則」, 東京: 文化出版局, 1981.
- J. Anderson Black, 山内沙織역, 「ファッションの歴史(上)」, 東京: PARCO. IN 1977.
- ハ・スカル・セツセ 著, 日向あき子譯, 「服飾の歴史-その神秘と科學-」, 東京: 美術出版社, 1974.
- Boucher, Francois.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and Hudson, 1967.
-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Ma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3.
- Contini, Mila. *Fashion*, London: Paul Hamlyn, 1967.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Payne, Blanch.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 Sichel, Mprion. *Costume Reference 4*, Boston: Publishers, Plays Inc., 1977.
- 1) バスカル・セツセ著, 日向あき子譯, 「服飾の歴史-その神秘と科學-」(東京: 美術出版社, 1974), p.205.
 - 2) 小川安朗, 「服飾變遷の原則」(東京: 文化出版局, 1981), p.20.
 - 3) 허진웅, 「중국 고대사회」(서울: 지식산업사, 1993), p.226.
 - 4)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pp.7~9.
 - 5)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102.
 - 6)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London, 1967), p.180.
 - 7) 김인숙, "서양복식에 나타난 금제고찰", 「대한 가정학 회지」, 19권, 3호(1981), p.2.
 - 8) 「增補文獻備考」, 卷第八十, 禮考二十七, 二 金英淑(編)「韓國服飾史 資料選集: 上古・高麗編」(서울: 민족문화사, 1985), p.108.
 - 9)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金鍾權(譯), 「完譯三國史記」(서울: 廣書出版社, 1976), pp.401~402.
 - 10)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 11)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98), p.52.
 - 12)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古代・中世編-」(東京: 光生館, 昭和48), p.32.
 - 13) 신상옥, 「西洋服飾史」(서울: 수학사, 1988), p.14.
 - 14) 한도용, 「세계문양도감」(서울: 회망출판사, 1978), p.229.
 - 15) 조규화, 「복식미학」(서울: 수학사, 1993), p.182.
 - 16) 김명애,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 -복식사 문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pp.61~62.
 - 17) 신상옥, 전계서, p.108.
 - 18) 이병도, "강서 고분벽화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서울: 박영사, 1976), p.416.
 - 19) 琴基淑, 「朝鮮服飾美術」(서울: 열화당, 1994), p.100
 - 20) 尹一柱, 「色彩學 入門」(서울: 민음사, 1974), p.101.
 - 21) 강운숙, "服色の 象徴的 意味에 관한 研究 -陰陽五行 思想을 基礎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p.10~11.
 - 22) 유송옥·이은영·황선진 공저, 「복식문화」(서울: 교문사, 1997), p.152.
 - 23) 丹野郁, 전계서, p.94.
 - 24) 조규화, 전계서, p.136.
 - 25) 이은미, "傳統 色彩에 관한 研究 -三國時代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pp.6~7.
 - 26) 林瑞雲, "古代東洋服色制度의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3), pp.107~108.
 - 27) 琴基淑,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

- 究”(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p.222.
- 28) 이순홍, “李朝時代의 服飾禁制”(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2), pp.44~45.
- 29) Blanche Payne, 전계서, pp.10~12.
- 30) 丹野郁, 전계서, p.29.
- 3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97), p.36.
- 32) 신상옥, 전계서, pp.33~35.
- 33) 상계서, pp.51~52.
- 34) Mila Contini, *Fashion* (London: Paul Hamlyn), 1967, p.42.
- 35)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世運文化社, 1979), p.25.
- 36) J. Anderson Black, 山内沙織역, 「ファッションの歴史(上)」(東京: PARCO. IN 1977), p.61.
- 37) 신상옥, 전계서, p.51.
- 38) 정홍숙, 전계서, p.68.
- 39) K. M. Lester & R. W. Kerr, *Historic Costume* (Illinois: Chas. A. Bennett. Co., 1967), p.63.
- 40) 服裝文化協會(編), 「服裝大百科事典 -上-」(東京: 文化出版局, 1977), p.262.
- 41) 백영자·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서울: 경춘사, 1998), p.98.
- 42) 丹野郁, 전계서, p.142.
- 43) Blanch Payne, 전계서, p.128.
- 44) 權賢珠, “東方文化에 影響을 받은 비잔틴 服飾文化의 特性에 關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p.34.
- 45) 小川安朗, 「民族服飾의 生態」(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昭和 59), p.163.
- 46) 신상옥, 전계서, p.122.
- 47) 박일록, 「복장문화사」(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9), p.126.
- 48) 김기엽, “고딕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p.18.
- 49) 정현숙, “십자군 전쟁이 중세 복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5), p.31.
- 50)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Martin's Press, 1980), p.277.
- 51) Blanche Payne, 전계서, p.196.
- 52) 정현숙, 전계서, p.35.
- 53) 정홍숙, 전계서, p.143.
- 54)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近世編-」(東京: 光生館, 昭和42), p.58.
- 55)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서울: 형설출판사, 1990), p.171.
- 56) 김경희, “서양복 남자 바지의 변천과정 고찰 - 기원에서 18C까지 -,”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p.59.
- 57) 김인숙, “불란서 혁명기의 의생활에 나타난 특성 고찰” 「대한 가정학회지」19, 4,(1981.12.) p.4.
- 58) 문혜경,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9), p.13.
- 59) 丹野郁, 原田二郎, 이희현(譯), 전계서, p.144.
- 60) 신상옥, 전계서, pp.250~251.
- 61) 유희경, 「韓國服飾文化史」(서울: 敎文社, 1995), p.42.
- 62) 박경자, 「韓國服飾論攷」(서울: 新丘文化社, 1983), pp.17~20.
- 63) 李京子, 「韓國服飾史論」(서울: 一志社, 1985), p.101.
- 64) 박보영, “韓國 服飾文化史에 나타난 禁制 考察,”(석사학위논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2), pp.4~5.
- 65) 양경애, “삼국시대 지배계층 복식 연구,”(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p.64.
- 66) 「高麗史」, 志卷 第三十九, 刑法 二·九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譯註高麗史 第七(志三)」(부산: 동아대학교 출판사, 1971), p.631.
- 67) 「高麗史」, 志 卷第三十九, 刑法二, 十一.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編), 전계서, pp.663~634.
- 68) 「高麗史」, 志 卷第三十九, 刑法二, 二十二.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전계서, p.647.
- 69) 朝鮮王朝實錄, 成宗 3年 1月條, 第 14卷 「성종실록」(서울: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p.203.
- 70) 太祖實錄, 太祖 3年 6月條, 第6卷 「이조실록1: 태조강헌대왕실록 제1권~제6권」(서울: 여강출판사, 1991), p.330.
- 71) 朝鮮王朝實錄, 世宗11年 二月條, 第43卷. 「세종장헌대왕실록 6」(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69) pp.371~372.
- 72) 黃善珍,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복식문화 비교연구”(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1), p.75.
- 73) 장문호, 전계서, p.162.
- 74) Elizabeth B. Hurlock, 전계서, p.34.
- 75) 조규화, 전계서, pp.146~149.
- 76) 신상옥, 전계서, p.244.
- 77)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전계서, p.39.
- 78) 박경자, “혜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韓國의 服飾」(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344